

‘코스피 6000시대’... 증권株 강세에 목표가도 잇단 상향

KRX 증권지수 올해 84.26% 상승 거래대금 40조원대 웃돌며 활황 활동계좌 1억430만개로 투자열기 신용융자 잔고도 사상 최대 경신 수수료 수익 기대에 실적개선 전망



여의도 증권가 전경.

‘강세장엔 증권주’라는 증시 격언이 있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고공 행진할 땐 증권사 실적에 치솟고 주가도 필 것이란 전망이 반영된 말이다. 증시가 활황을 맞으면 투자자의 돈이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리지(주식매매)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의 수익도 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코스피 ‘6천피’(코스피지수 6000선)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공식이 더 짙어지는 모양새다. 강세장을 맞아 증권주가 큰 폭으로 뛴박질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증권지수는 올해 들어 84.26% 상승하면서 주요 KRX 업종별 지수 중 5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같은 기간 189.94% 뛰었다.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65.65%)과 삼성증권(48.28%)도 45% 넘게 올랐다.

급등 배경은 국내 증시 호황이다. 중

동 전쟁의 여파로 지난달 31일 5052.46까지 추락했던 코스피는 반도체 호황을 등을 받관 삼아 장중 6500선까지 뛰어올랐다. 연일 최고치를 고쳐 쓰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주식·채권 등 증권시장의 일평균 결제대금은 35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7조 2000억원) 대비 31.6%, 직전 분기(31조 1000억원) 대비 15.3% 증가한 수치다.

한국거래소 기준 유가증권·코스닥 합산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도 올해 들어 계속 40조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1월 41조

9702억원, 2월 46조861억원, 3월 54조 1736억원, 이달 들어 지난 17일 기준 40조4887억원을 기록 중이다.

개미들은 앞다투어 증시로 뛰어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1억430만 9647개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는 63만 5074개, 전주 말보다는 27만7334개 증가한 개수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자금인 신용융자도 34조8107원(22일 기준)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주식 거래가 급증하면 증권사 수익도 늘어난다.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증권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여서다. 위탁매매 수수료는 증권사의 전통적인 수익원이다. 과거 증권사 수익의 20~30% 정도가 수수료 수입이었지만, 올해는 큰 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권사의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중동 전쟁이후에도 미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주식 같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코스피 역시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다. 이런 점이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를 북돋울 것이라 분석이다.

실적 전망도 밝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증시 개편 정책, 개인·기업들의 가속화되는 증시로 자금 유입 등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브로커리지 수익 비중이 높은 증권사일수록 이익 방어력이 높을 것이며, 안정적인 수익원을 기반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 매력도 유효하다”고 짚었다. 최선호주로는 키움증권, 차선호주로는 삼성증권을 제시했다.

증권업종에 대한 장미빛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증권사들도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 등 주요 5개사를 중심으로 눈높이를 올리고 있다.

이달 미래에셋증권에 보고서 낸 증권사 8곳 중 6곳이 목표가를 상향했으며, 지난달 최대 11만원의 목표가가 제시됐다. 삼성증권도 9곳 중 4곳이, NH투자증권은 10곳 중 7곳이 올렸으며 각각 최대 15만4000원, 4만4000원의 목표가가 제시됐다. 키움증권은 7곳 중 3곳이 목표가를 상향하고, NH투자증권이 70만원을 제시했다. 한국금융투자에 대해서도 8곳 중 3곳이 목표가를 높이면서, SK증권이 최대치인 39만9000원으로 올렸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 변동성을 높이고 있지만 정책, 실적, 주주환원이 모두 뒷받침되는 가운데 중장기로 주가순자산비율(PBR) 리레이팅 기대가 유효한 구간”이라며 대형사 중심의 상승을 전망했다. 그 중에서도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투자, 키움증권을 선호주로 꼽았다.

윤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투자는 금융 계열사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며 꾸준한 이익 성장이 전망되고, 키움증권은 국내 거래대금 점유율(M/S) 상위 증권사로 리테일 전반에서 시장 활황의 수혜를 누리 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방시혁 리스크’에 BTS 호재 문힌 하이브

하이브 주가 연초 대비 28.76% 하락 BTS 완전체 복귀에도 반등 실패 증권가 목표주가 잇단 하향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준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하이브 주가가 연초 대비 약 30% 가까이 급락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과 월드투어라는 대형 호재에도,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주가를 짓누르면서다. 증권사들도 잇따라 목표 주가를 낮추며 보수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

◆‘신뢰 붕괴’로 변진 오너리스크... 주가 ‘흔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하이브의 주가는 연초 대비 28.76% 하락했다. 최근 신고가 대비로는 낙폭이 더 크다. 지난 2월 13일 장중 40만5500원을 고점으로 최근 24만원대까지 밀리며 약 40% 급락했다.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수준으로, 단순한 조정을 넘어 ‘추세 훼손’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한 달 흐름은 시장의 판단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이브는 1개월 기준 15.15%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에스엠(+3.92%), JYP엔터테인먼트(+2.11%), 와이지엔터테인먼트(-0.19%) 등 주요 엔터사들은 대체로 큰 하락세 없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동일한 K-엔터테인먼트 업종 내에서도 하이브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모습이다. 업종 공통 요인보다는 개별 변수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가 급락의 중심에는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조사 이후 약 5개월간 이어진 수사 끝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은 2019년 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 매각을 유도하고, 이후 상장 과정에서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거래소와 하이브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자본시장법상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이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단순한 법적 리스크를 넘어 경영 공백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 실제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주가는 즉각 하락 반응을 보이며 ‘이벤트 드리븐’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방 의장이 최근 약 70만주에

이어 16만주를 추가로 증여하기로 하면서 시장 해석은 더욱 엇갈리고 있다. 회사 측은 임직원 보상 재원 마련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 대응이나 여론 관리 차원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방시혁 리스크 장기화 우려 ↑...BTS 효과마저 상쇄

문제는 이 같은 리스크가 하이브 사업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방시혁 의장은 최대주주이자 총괄 프로듀서로서 콘텐츠 제작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단순한 경영진을 넘어 핵심 IP 경쟁력의 축이라는 의미다. 추가 증여 이후에도 최대주주 지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배력 자체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주가 할인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경쟁력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BTS 완전체 컴백과 월드투어, 글로벌 차트 성과 등 뚜렷한 호재에도 주가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빌보드 ‘글로벌 200’ 등 주요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 성과가 이어졌음에도 주가 흐름은 약세를 보였다. 호재가 없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압도한 셈이다.

증권가 역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IBK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하이브 목표주가를 각각 4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업종 밸류에이션 하락과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달러쟁겨 돌아온 서학개미... ‘복귀계좌 1조’

RIA 첫 출시 29일만에 가입 16만개 이달 미국 주식 14억달러 순매도 전환 내달 말까지 옮기면 양도세 100% 감면



ChatGPT로 생성한 미국 주식 시장에서 빠져 나온 자금이 가운데 ‘RIA’ 경로를 따라 이동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복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잔고도 1조원을 돌파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내 증권사의 RIA 누적 잔고는 1조16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일 첫 출시 이후 29일 만이다. 계좌수도 15만9671개로 16만개에 달했다. 출시 첫날 누적 잔고는 519억원으로,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약 20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RIA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복귀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5월 31일까지 복귀 시 100%,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의 양도소득세가 공제된다. 1인당 최대 해외주식 매도 금액은 5000만원이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매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 약 14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순매도했다. 서학개미가 미국 증시에서 월 기준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6월에는 2억3200만 달러(3424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서학 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1월 50억299만달러, 2월 39억4905만달러, 3월 16억9150만달러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내 증시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 동시에 양도세 감면 혜택과

지 이뤄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지난해 말 4200선에서 전날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하는 등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반면, 뉴욕증시의 S&P500지수는 올해 1월 28일 7000선을 돌파한 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달러 강세 시점에서 환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도 국내 복귀를 재촉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지난 20일 기준 서학 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유 규모는 총 1763억달러(260조원)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최근 코스피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고, 양도소득세를 100%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서학개미들의 국내 증시 복귀도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신하은 기자